

2024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 비평문 번역지원 공모 심의 결과 공고

2024 한국미술 비평문 번역지원 공모 심의결과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양질의 번역자료 제공을 통한 한국미술 위상 제고 및 국제교류 활성화와 한국미술 담론화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미술 비평문 번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총 17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전문위원 심의를 통해 총 12건(2건 조건부 선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공모에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심의개요

1) 심의일정 및 방법

- 심의일시

(원고 심사) 2024년 3월 14일(목)

(번역 심사) 2024년 3월 28일(목) ~ 3월 29일(금)

- 심사방법 : 내·외부전문가 5인의 서류 심사

※ 원고 심사 선정자 중 번역업체를 지정한 경우만 번역 심사 별도 진행

2) 심사위원

- 원고 심사

이름	소속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윤지영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해외진출팀 팀장
김성우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디렉터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
엄선미	(전)박수근 미술관 관장

- 번역가 심사

이름	소속
길예경	시각예술 번역가
민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정은	이안박스 대표
김남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김제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부 교수

2. 심사기준

- 원고 심사

심의지표	세부 심사내용	가중치
원고의 적절성/타당성	-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원고의 적절성 및 번역의 필요성 - 필진 및 내용 구성의 전문성	35%
번역물의 파급력	- 번역물의 배부·활용 계획의 구체성 - 한국미술의 해외소개 기여도	35%
사업성과 기대도	- 해당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30%

- 번역가 심사

심사지표	가중치	세부심사 내용
번역물의 가독성	40%	- 번역물의 원어 가독성
원작의 이해도	30%	- 번역본 원작의 이해도
번역 용어의 전문성	20%	- 시각예술 관련 용어 사용의 적정성 - 번역 내용의 전문성
번역가의 역량	10%	- 번역가의 경력 및 역량

3. 선정결과 *조건부선정

<지원신청순>

번호	신청자명	자료명	번역가	지원확정액 (원)
1	정재연	뉴욕에서 여성 예술가로 존재하기 3인 작가	미지정	4,875,000
2	문서진	믿음의 형태: 불투명함에/에서 손을 뺀 일, 문서진의 작업에 대하여	미지정	2,415,600
3	이용철	1. 돌, 철, 흙 : 비장소를 감각하기 2. 재난의 다이어그램	지정	4,752,000
4	아트스페이스3	최상철 작가 비평문	미지정	2,640,000
5	노송희	디지(Dizzy)	미지정	5,000,000
6	월간미술*	On stage: 한국 여성작가	미지정	5,000,000
7	정우미	<하얀 새벽 (.) L N 닷추모> 수록글 (개인전 전시 도록)	지정	1,064,320
8	권회영*	김범 작업의 시대정신 고찰: 《박모》(1995) 연계 좌담과 《'98 도시와 영상: 衣食住》(1998)를 중심으로	지정	4,567,860
9	최가영	1. 가공(加工)과 가공(架空)으로 방부 처리된 결실 2. 마젠타, 선셋	미지정	1,601,600
10	여집합	<알가다칸 군, 쌀롱> 전시 도록	미지정	3,960,000
11	유용은	예술연구 <내가 헤엄치는 이유 (가제)>	미지정	5,000,000
12	전소정	syncope	지정	5,000,000
예비	지나손	지나손 비평 (BEING_Gina Sohn)	미지정	5,000,000

※ 지원금은 번역 완료본 접수 후 번역가 또는 업체에 지급

4. 총평

- 원고 심사

- 해외매체에 배포함으로써 미술 비평을 통한 한국미술의 확산과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본 공모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대체로 우수한 콘텐츠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이 있다고 하겠다. 대체로 비평문의 번역과 해외배포를 통해 기관 및 작가들이 프로젝트 및 기획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상당히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번역가 심사

- 전반적으로 지원자의 샘플 번역이 번역의 완성도나 전달력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비평문이라는 텍스트 장르의 특성과 관련되는 역사, 문화, 이론적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에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한국미술을 해외에 출판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완벽한 번역을 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에서 오역이나 원문의 내용이 누락된 부분, 부적절한 어휘나 개념, 전달력이 부족한 모호한 문장 등이 발견되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5. 문의 : 시각해외진출팀 02-2098-2923/art-trans@gokams.or.kr